



자우 스님은 ... 1992년 영문 스님을 은사로 백흥암에서 출가 1999년 동학사승가대를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2003년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받았고 파라마담마사 영어담마스쿨 교사로 활동했다. 2003~2005년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맡았으며 2006년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국제포교를 펼치고 있다. 현재 LMB싱어즈 지도법사, 조계사 청년회와 7051전차부대 백호대대 법사로도 활동중이며 동학사승가대 불교영어 강사를 맡고 있다. 2013년 제 25회 조계종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사진=백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하며 영어를 공부하니 흥미도 가지고 경쟁심도 가져요. 이런 환경속에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쑥쑥 늘어나죠.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캠프가 끝나고 나면 재정상으로는 적자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받았을 행복을 생각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아이들이 훗날 불교의 재목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하면 더 큰 보람을 느끼죠.”

세계 속에 꽃피는 한국 불교

스님은 우리 불교가 좀더 세련되고 현대화 되고 국제화되기를 서원한다. 그래서 국제포교는 다방면에서 우리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스님의 지론이다. 매주 일요일 외국인들을 위한 참선 법회를 여는 것도 이런 뜻이 반영된 것이다.

“제 목표는 서구사회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승가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한국불교를 세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국제 포교는 미국 등 서구에서 한국 불교를 접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출가를 원하는 이들에게도 길을 안내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원력이 발현이 되어 출가를 시킨 이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스님이 ‘길 위에서’의 주인공으로 미국 유학생활 중 교수 임용을 앞두고 출가한 상욱 스님과, 현재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중인 인도네시아계 미국인 진담 스님이다.

“사실 외국 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국에서 출가를 하는 길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출가를 했다고 해도 우리 수행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심을 했다고 해도 승가공동체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먼저 걸어나 길을 후배들에게 안내해주고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를 설명해주다 보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영어참선 법회 후 외국인들과의 차담

스님은 조계종 국제불교학과의 개교 당시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국제불교학과는 조계종이 운영하는 비구니 스님 영어전문교육기관으로 스님은 이곳에서 초창기 커리큘럼을 짜고 제반적인 과정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기도 했다. “6개월 정도 종단 일을 맡아 하면서 종단이 아직도 국제 포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제포교는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영어는 기본이고 우리의 불교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종단이 국제포교를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세계속에서 꽃피기 위해서는 탄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 국제포교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수행지도법이나 연구법 등을 늘 연구하죠. 가장 큰 문제는 종단 차원에서 공식화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조계종의 근본은 지키면서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종단과 스님들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님은 국제포교와 어린이 포교를 발원한 스님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연구할 수 있는 포교 공동체도 꿈꾼다. “사실 포교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저희 선원의 공간이 확보된다면 스님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고 포교를 고민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포교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늘 마음의 평화 평정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고 포교한다고 말하는 자우 스님. 그래서 산속에서도 도심속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님의 모습은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밝은 힘이 느껴졌다. 늘 도전을 정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스님은 국제포교의 새로운 길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기울이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2013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장면

전법일기

불자들 신바람에 저절로 꾸러가는 군법당

필자는 남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다. 공군 군종법사를 복무한 뒤 다시 육군 군종법사로 입대한 것이다. 오늘은 공군 시절의 포교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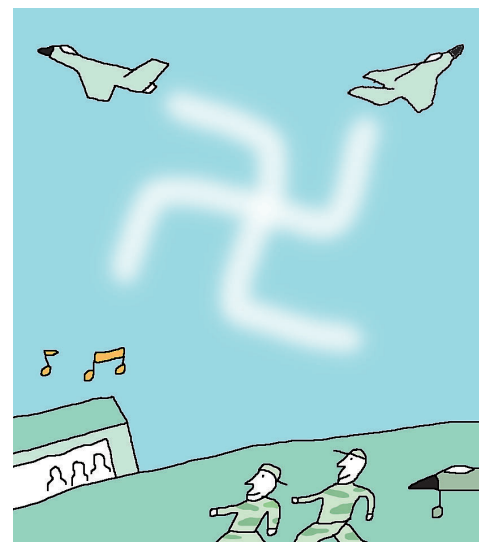
공군에 관한 선입견 하나는 공군이 비행기만 타는 줄 안다는 것이다. 사실 전투기를 타고 적군을 제압하는 임무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가 바로 적기(敵機)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지상무기 운용이다. 이른바 ‘방공포’ 운용으로 방공포병여단은 다양한 방공무기들을 운용해 대한민국의 후방 영공을 방어하고 있다.

2008년 대구의 제1방공포병여단 감천사에 근무할 때다. 처음으로 군종법사로 부임한 곳기기에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먼저 병사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기에 병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딱딱한 법회방식을 피했다. 법당이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 앞에서 웃고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법당 밴드부였다.

밴드명은 시대의 아이콘 보아(BOA)로 지어졌다. BOA는 ‘Buddhist of AirDefense’의 약자로 법회에서 찬불가와 의식곡을 기타와 드럼, 키보드도 연주했다. 찬불가를 록(Rock) 음악 풍으로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당시 부대 내 660기 장병들이 주축이 됐는데 밴드부가 활성화되자 법당에 오는 병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밴드부에 가입하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때는 대구 중앙로에 나가 찬불가 밴드 공연을 했다.

법당에 출입하는 장병들이 조금씩 늘어나자 기존 신도회들은 절로 신바람이 났다. 매일 한 달에



그림·박구원

한 번씩 찬불가와 유행가를 함께 부르는 ‘합창법회’를 열었는데 신도회가 주축으로 나서줘 큰 힘이 됐다. 이어 동지를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제1회 감천 한마음축제’도 열었는데 교리 퀴즈대회인 ‘감천종을 울려라’와 율놀이 대회 등 군장병, 군법당 신도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됐다.

이런 노력이 쌓이자 당시 법회 인원이 예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다. 법회 참가자가 6~70명에서 120명을 웃돌았다.

여기서 더 나가 군법사가 없더라도 포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법당을 만들고자 했다. 자칭 타칭 포교사양성소였다.

먼저 금강회, 관음회 할 것 없이 신도들에게 포교사 고시를 권장했다. 흥겨운 법회 이후에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감천사 법당

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한 포교사만 11명에 달했고, 영어가 능통한 국제포교사도 2명이나 배출했다. 서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신도회가 더 화합하는 장점도 발견했다. 신도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법은 그대로 이어졌다. 나중에는 서로 포교사 고시를 권장하며 공부준비를 돕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은 최전방 철책 부대로 예하 군법당이 많기에 포교사 한분 한분이 소중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더욱 열심히 포교사 양성에 발 벗고 나설 걸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군법당은 법사 스님들이 1~2년마다 한 번씩 법당을 옮긴다. 하지만 신도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신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법당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서 종교생활을 해보지 않은 병사들에게 군법당은 낯선 곳일 수 있다. 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끄는 것은 작은 관심(觀心)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임 감천사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불교에 대해, 법당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스님들은 이런 관심을 이어주는 작은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장병과 가족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전국의 군법당으로 발걸음 하길 기도하며 오늘도 부처님 전 정성스레 향을 올린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Advertisement for '2014 신상품 삼환양초' (2014 New Products Samhwan Yangcho) from www.shoandle.com. The ad features a grid of various incense products in different colors and packaging, including '삼환양초' and '삼환양초' series. The text highlights the products' quality and variety.